

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즈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업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구태 정치 도움 필요없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예정대로라면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박근혜의 간계와 농간에 이 모든 계획은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린 것은 국회뿐이었습니다. 국민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탄핵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물론 탄핵 외에는 제도권 안에서 현실적으로 박근혜 권력을 타도할 방법을 찾기 쉽지 않고, 아울러 권력형 비리와 부정을 쉽게 응징할 수 없는 취약한 도덕적 기반 위에 우리 사회가 서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실 탄핵은 박근혜의 직무정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야가 합작해서 박근혜를 축출하게 되면 여전히 기업에게 휘둘리는 보수 거대 정당이 분점하는 대한민국 기득권 체계는 온존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강고해집니다.

우리가 어디, 박근혜가 아니면 김무성 박지원도 좋다, 이랬습니까? 일찌감치 한 정치인이 거론했던 가난해서 못 배워서 더럽고 아니꼬운 꼴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 즉 사람 사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박근혜 범죄를 기화로 나선 것 아닙니까?

그저 청산의 대상일 뿐인 새누리당이 빠지게 된 것, 또 대의보다는 주도권에 더 관심이 있는 국민의당이 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 것, 촛불혁명의 선명성을 강화시켰다고 봅니다.

참고로 김용민 브리핑이 어제 오후 5시부터 진행 중인 트위터 설문조사 결과 하나 소개합니다. 12월 2일 야권발 탄핵 불발 책임의 가장 큰 몫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오전 6시반 현재 5,909표가 모아졌는데요. 95%박지원이었습니다.

이 촛불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언론 지향이 또 탐욕적 자본 배분이 촛불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9년 아니 이미 자본에게 권력이 넘어간 때부터 수십년에 이르는 이 질곡을 타파하기 위한 촛불입니다. 여기서 퇴로를 찾은 촛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걸 확인하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일 서울 광화문입니다. 혁명은 생각만큼 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만, 한 번 시작된 혁명은 생각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를 믿읍시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2일(금) 1부 | 오늘 탄핵 불발 책임은? "박지원" (95%)

[오프닝] 어차피 낮은 질서 도움 받을 촛불이 아니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댓’에 걸린 탄핵·분노한 민심 “가자, 여의도로”

-국민의당, 비난 빗발치자 "그럼 5일 표결" 새 제안

-탄핵 찬성 비박 31명 중 21명 “4월 퇴진 약속 댄 불참”

-박근혜 자진사퇴 밝혀도 ‘직무정지’ 못박지 않으면 헛일

- 3.8% → 15.1%... 이재명 ‘거침없이 하이킥’

-청와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당선시키려 도 넘는 개입

[뉴스듣기능력평가] 집시법상 청와대 시위의 허용범위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대북제재 결의 후...어째서 중국이 대남제재를 하는 걸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리 총 비용 200조원 초과

[경제의 속살] 이원배 민중의소리 기자

-대기업 회장 국정조사 D-5일 “진짜 몸통은 재벌이다!”

-국민의당의 한심한 좌고우면에 대한 계급적 해석

[공화국 논평] 수사팀장 윤석열에 대한 중대조치

구시대의 마지막 발악

경향신문 ‘덧’에 걸린 탄핵, 분노한 민심

어제 하루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일정이 통째로 흔들렸다. 먼저 새누리당은 ‘내년 4월 말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 6월 말 대통령 선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 공조에는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탄핵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이 난색을 표했다. 이 사이에 국민의당이 별집이 됐다. 성난 민심에 의해 말이다. 결국 국민의당은 ‘오늘 탄핵안 발의, 월요일 본회의 표결’ 중재안을 내고 여야 동참을 촉구했다.

한겨레 의원들, ‘탄핵 문자’ 폭주 · 홈페이지 다운

한겨레 보도를 보자.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는 정치권에 분노에 찬 응징이 쏟아졌다. SNS에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의전화를 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새누리당 의원 128명의 휴대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다. 또한 탄핵안 발의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도 큰 영향을 받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다운되기도 했다.

朝鮮日報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에 읍소

이 정도가 아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사무실, 홈페이지 등에는 항의가 폭주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당 전복 당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늦게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 '5일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에 "당장 탄핵안을 발의해서 5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했다. 국민의당 지도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거의 읍소했다고 한다.

새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중앙일보 비박 21명 ‘탄핵 불참’으로 돌아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안 월요일 표결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월요일 본회의의 표결 시도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일보가 긴급 전화 설문조사 실시했다. 그 결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새누리당 의원 31명 가운데 21명이 ‘대통령 박근혜가 4월 퇴진을 약속하면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답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 외에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지지가 있어야 정족수인 200명을 채울 수 있다.

어차피 탄핵은 압박수단, 상징수단이었다. 새누리당이 빠진다고 크게 낙담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가 박근혜와 한 세트가 됐으니까 말이다.

한겨레 박근혜는 스스로 퇴진할 마음이 없다

새누리당이 채택한 당론에는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 시점만 4월로 정했을 뿐, 실제 퇴진할 때까지의 대통령 ‘2선 후퇴’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2선 후퇴’로 표현되는 사실상의 직무정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박근혜가 자진 사퇴를 밝히더라도 보여주기식 정치화법에 불과할 수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달까지 “헌법상 2선 후퇴라는 용어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겨레 보도, 4월말까지는 무려 5개월이 남았다. 그 사이에 무슨 수작을 부리겠나. 지지율 좀 회복했다고 판단되면 또 말을 바꾸지 않겠나?

중앙일보 차, 서문시장 화제 정치적으로 이용

대통령 박근혜가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대구가 박근혜의 정치적 고향이라면 서문시장은 보급 자리 같은 상징적 장소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다. 그래서 어제 박근혜의 서문시장 방문은 와해된 콘크리트지지층을 복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보도, 전방위적으로 박근혜가 움직이고 있다. 모종의 시나리오에 의해 말이다.

중앙일보 새누리 “6월 대선 싸워볼 만하다”

새누리당이 어제 ‘대통령 박근혜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 주요 인사들은 6개월 남짓의 대선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현재 대선주자로 누가 나설지조차 불확실한 상태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우현 의원은 “대선이 내년 6월에 치러진다면 우리가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안정적 국정운영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새날이 온다

중앙일보가 새누리를 ‘가짜 보수’라고 칭했다

보수 일간지로 꼽히는 중앙일보의 흥미로운 보도 소개한다. 새누리당의 당 지지율이 3위까지 떨어지고 친박-비박 내분에 휘말리며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집권층의 와해와 동시에 보수성을 기치로 내걸었던 각종 정책·법안도 전면 후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튼짓을 하다가도 선거 때면 무작정 중복 딱지를 붙이거나 '우리가 남이가'에 호소하는 지역주의가 보수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었다고 진단했다.

세계일보 이재명, 대선주자 지지 2위로 꺾충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15.1%로 3위를 차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붙기 시작한 9월 말 리얼미터 조사에서 3.8%에 불과했던 지지율은 두 달 새 4배가량 치솟았다. 리서치뷰가 공표한 11월 말 정기조사에서는 17.2%의 지지율을 얻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반짝 인기라고 폄하한다. 세계일보 보도, 과연 그럴까? 그러기에는 이재명 시장의 행보가 상당히 치밀한 전략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조정은 있어도 다른 대선주자처럼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안철수는 다시 이재명을 엿을 수 없다.

주사 게이트

경향신문 “서창석 위해 靑 개입”

청와대가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서울대병원장 당선을 위해 병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청와대가 서창석의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인사검증을 과도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날짜와 일정 공개도 제대로 안했다고 한다. 서창석, 그 배후에 박근혜가 있었다. 서로 음흉한 거래가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東亞日報 “朴, ‘파우더 룸’서 주사”

대통령 박근혜가 청와대 관저 내에 위치한 일명 ‘파우더룸’에서 주사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선 진료’ 의혹을 받은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씨가 동아일보에 이같이 밝혔다. 또한 주사제 투약은 간호장교 조모씨가 직접 했다고 한다. 간호장교 조모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했다. 조모씨는 부인 일씨의 인터뷰를 했다. 믿을 수가 없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용서받지 못할 자”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의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1995년에 암울했던 1980년대를 그린 ‘모래시계’란 드라마가 있었다. 거기 나오는 한 장면을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딸한테서 한 남자를 떼놓기 위해 남자를 삼청교육대에 보내버린 힘센 아버지에게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아버질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응답했다. ‘용서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힘도 없으면서 용서를 하구 말구 해?’

그렇다. 힘도 없으면서 거론하는 용서는 결코 용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비겁한 후퇴, 좌절일 뿐이다.

박근혜는 재판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 꼭 그리되게 해야 한다. 검찰이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쓴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기 어렵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촛불을 든 팔에 힘이 떨어질 때면, 물이 밀려드는 어두운 세월호 선실에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하자. ‘나, 살아 있어.’ ‘엄마, 사랑해.’”

거의 다됐다
내일 끝내자

개별이 몸통! 재벌-전경련 해체!

재벌범죄 EXPO

 이재운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송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

재벌총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2016. 12. 03. 토.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